



충청지역
느티나무

개울의 수직바위에 자라는 느티나무

✿	지정번호	대전-6-5-1	✿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517-74
	지정년도	1982		36° 22' 40.67" N
	관리기관	대전		127° 25' 45.82" E
	수령	390년		
	수고	16m		
	흉고둘레	4.6m		

계족산 자락의 용화사 가는 길에 있는 보호수(대전-6-5-1) 느티나무는 개울가의 수직 바위와 도로가 만나는 위치에 자라고 있다. 접근성은 도로에서 직접 만나거나 수직 바위 아래로 약간 돌아가서 위를 쳐다보는 방법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9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6m, 가슴높이둘레는 460cm, 밑동둘레는 5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크게 2갈래로 갈라졌으며, 남쪽의 3m 높이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도로와 수직 바위 사이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느티나무가 있는 바위에 새겨진 암각과 관련하고 있다. 보호수 아래에는 '임천林泉'이라는 글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임천은 우물의 이름이다. 조선 후기의 숨은 학자가 커다란

느티나무를 끼고 흐르는 개울의 물이 맑고 깨끗함을 기리기 위하여 돌에 임천이라는 글을 새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임천은 '수풀 속의 샘'이란 뜻으로 숨은 선비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 임천이 우물 왼쪽 바위에 새겨진 것이라면 오른쪽 바위에는 '덕원德原'이라 쓰여 있는 바위가 있다. 덕원은 '회덕의 덕'으로서 덕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송씨 성을 가진 사람 이름이라는 규원奎園의 암각 글씨도 있는데, 100년 전에 이곳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개밭로 집 마당에 있던 암각이 갈 곳을 잃으면서 이곳 나무 옆에 세워놓았다. 느티나무를 지나면 서체를 변경하여 2007년에 복원된 덕원德原과 세외성산世外聖山의 표지도 있다. 세외성산은 세속 밖에 성스러운 산으로서, 인근의 용화사를 품고 있는 계족산을 일컫고 있다.